

#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

김신규\*\*

## 1. 서론

1989년을 전후한 중·동유럽의 탈공산화 과정에서 민족을 둘러싼 갈등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 혹은 국가간에 나타났다. 지난 40여년간의 전체주의적 공산통치 속에서 억눌려 있었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도 첨예한 형태로 등장한 것이다. 옛유고슬라비아에서의 민족간 무력충돌, 옛소련에서의 민족갈등을 포함해 많은 경우 민족간의 갈등은 폭력과 전쟁을 동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이 많은 국가가 독립했다.

체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3년 1월부터 새롭게 탄생한 현재의 체코 공화국이 현재의 모습을 하기까지는 여러 민족들과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했다. 1918년 1차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가로 독립했었고, 1938년 문헨협정 이후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으로 그리고 다시 2차대전 이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으로 그리고 1991년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존재했었으며, 1993년에 와서야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정착되었다.

불과 100여년도 되지 않는 역사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2번의 걸친 국가의 분리와 통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도 향후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탈공산화 과정에서의 국가분리는 다른 지역에서 경험했던 국가분리와는 완전히 상이한 경로로 진행되었는데, 흔히 체코의 경우는 '벨벳의 이혼(velvet divorce)'이라 불릴 정도로 평화적 방법에 의해 국가분리를 단행했다.

---

\* 본 논문은 2001년 3월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제6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같은 제목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까렐대학교 부스코바(M. Buskova)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한국의대 체코어과 강사. ksk0902@dreamwiz.com

탈공산화 과정에서 중·동유럽의 거의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난 국가분리와 민족간 충돌양상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둘러싼 문화적 양상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비단 중·동유럽에서의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젤러(E. Gellner)와 스미스(A. D. Smith)의 지적대로 민족갈등이 문화적 양상을 띠는 것은 민족이 국가라는 단위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러한 측면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발현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란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민족을 둘러싼 집단적 태도로써의 민족주의가<sup>2)</sup>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sup>3)</sup> 또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일치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별민족간의 대립은 체코내에 혼재했던 여러 민족간의 내적 식민지론이나 지역간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혹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원거리 민족주의의 형태를 모두 포괄한 고찰이 요구된다.<sup>4)</sup>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지속적인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갈등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그것

- 
- 1) Ernest Gellner, "근대화화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백낙청 譯 (서울: 창비, 1981), p. 134; Anthony D. Smith, "Culture, community and territory: the Politics of Ethnicity and Nationalism," *International Affairs*, Vol. 72, No. 3 (July 1996), pp. 445-458.
  - 2) 민족주의(nationalism)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하나이다. 콘은 민족에 대해 최고의 충성을 맹세 하려는 민족구성원의 감정상태와 의식적인 행동으로,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의 수평적 동료의 식으로, 포스피엘스키는 언어, 문화집단으로 집약되는 공통의 정서 그리고 라멧은 민족유산에 향한 집단적인 태도로 각각 민족주의를 정의했다.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1961); 백낙청 編,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창작과비평, 1981), pp. 26-34; Benedict Anderson,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형숙 역 (서울: 나남, 1991), pp. 19-23; D. Pospieski, "Some Remarks on the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and Religions Revival,"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Vol. 2, No. 1 (Spring 1984), p. 73; Pedro Ramet, "Christianity and national heritage among the Czechs and Slovaks," in Pedro Ramet (ed.),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Durham: Duke Univ. Press, 1989), pp. 265-266 참조.
  - 3) 알터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현된 양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속성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방과 종속의 개념 두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고 그것은 시공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발현된다'. Peter Alter, *Nationalism* (London: Edward Arnold, 1994), pp. 1-15 참조.
  - 4) Michael Hecher, "Internal Colonialism Revisited," in E. Tiryakian (ed.), *New Nationalism of the Developed West* (Boston: Allen & Unwin, 1985); 김용직, "민족주의, 국제관계, 근대성,"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나남, 1995), pp. 163-164에서 인용.

이 어떤 방향으로 표출되었는가를 통해,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족주의의 전반적인 의미와 그 발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1918년에서 1938년 사이 제1공화국 시기의 민족주의를, 제3장에서는 1948년에서 1989년 사이 공산정권 시기의 민족주의를 그리고 제4장에서는 1989년 탈공산화 민주이행에서 민족을 둘러싼 균열구조<sup>5)</sup>와 그 발현양상을 각각 살펴본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현대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닌, 현재는 주변국이 된 독일이나 헝가리 등과의 공유된 역사이기 때문인데, 이들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1918년 1차대전 이후로 한정시키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를 역사적으로 각 민족이 공유한 부분까지 확대한다. 이런 부분은 특히 체코민족, 슬로바키아민족 그리고 독일민족의 역사공유가 근대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 2. 제1공화국 시기의 민족주의(1918-1938)

### 2.1 체코-독일간 민족주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옛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긍정적 유산과 부정적 유산을 동시에 물려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체인구의 30%에 이르는 소수민족문제였다. 그중에서 전체인구의 23.5%를 차지하는 독일인과 주도민족인 체코슬로바키아인과의 갈등관계는 제1공화국 시기 가장 중요하고 충돌적인 문제였다.

19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 전체인구 1,360만명 중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인이 876만명, 독일인이 321만명, 헝가리인이 74.5만명, 루테니아인이 46.2만

---

5) 균열구조(cleavage structures)는 조직된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는 장기간에 걸친 갈등으로 정의된다. 민족주의를 고찰하는데 있어 이러한 균열의 개념은 유용한 분석도구가 되는데, 그것은 사회를 구획시키고 또 구획된 부분에서의 조직화가 곧 추상적 개념으로써의 민족과 민족주의가 구체적 양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열의 정의와 균열구조에 대해서는 Jan-Eric Lane and Svante O. Ersson,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London: Sage, 1994), p. 53; Douglas W. Rae and Michael Taylor, *The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0), pp. 1-2; Stefano Bartolini and Peter Mair,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pp. 215-216 참조.

명, 유태인이 35.4만명, 폴란드인과 기타 소수집단인 집시가 10만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었다.<sup>6)</sup>

독일인과 체코인의 갈등관계는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이전에 독일인이 체코 지역에서 주도적 민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바뀐 이후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면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건국 초기 독일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건국을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음모로 여기면서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킬 것과 독일인들의 오스트리아로의 편입 혹은 독일로의 편입을 주장하였다. 비록 이런 경향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의 파견으로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향후 문헌협정 이전까지 지속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시기 최대의 문제로 남아있었다.

한편 대통령 마사릭(T. G. Masaryk)은 체코인과 독일인의 평화공존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유럽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내 독일인도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이며, 이들에게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고<sup>7)</sup> 동시에 당시 전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으로 평가되는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헌법에서 독일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sup>8)</sup> 독일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에 충성하려 하지 않았다. 독일인들의 이러한 경향은 독일계 정당에 의해 대표되고 표출되었는데, 제1공화국 시기 활동했던 독일계 諸政黨의 기본적 목표는 소수민족에 대한 권리증진과 독일인 거주지역의 자치확대였다.<sup>9)</sup>

독일사회민주당(Německá socialně demokratická strana dělnická)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이전인 1917년 오스트리아와 민족국가 연방을 주장하면서 창당했다. 1919년 당강령을 발표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체코슬로바키

6) Janusz Bugajski, *Ethnic Politics in Eastern Europe* (New York: M.E. Sharpe, 1995), pp. 293-298.

7) Josef Korbel, *Twentieth-Century Czechoslovakia*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7), pp. 117-118.

8) 헌법에서는 소수민족의 평등한 민족적,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했으며, 소수민족이 20%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토착어 사용을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Ján Gronský a Jiří Hřebejk, *Dokumenty k Ústavnímu Vývoji Českoslovenaka I: 1918-1945* (Praha: Nakladatelství Karolinum, 1999), s. 66-69 참조.

9) Jiří Honajzer, *Vznik a Rozpad Vladních Koalic v Československu v letech 1918-1938* (Praha: Orbis, 1995), s. 14-15.

아 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간 소삼국협정(Malá dohoda) 폐기, 독일인 군대 창설, 독일민족의 자치정부수립 등을 요구했다. 독일기독교사회인민당(Německá křesťansko-sociální strana lidová)은 1919년 당강령에서 독일민족의 자결권, 국가분리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했고 유대인 경제활동 금지를 당강령에 포함시켰다. 농촌연맹(Bund der Landwirte)은 1920년 당강령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의 해산, 정부와 정부조직의 개편, 헌법개정, 민족별 행정구역 재편 등을 요구했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을 주도했던 농민당을 주축으로 한 '5개 정당연합(Pětka)'은 독일계 정당의 반체계적 성격을 친체계적, 적어도 半親體系的으로 돌려놓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독일계 정당의 연립참여로 이어졌다. 1926년부터 독일사회민주당과 독일기독교사회인민당이 연립내각에 참여함으로써 이들 정당의 반체계적 성격이 완화되었고 독일인들의 민족적 이해를 의회내로 수용하여 체코인과 독일인의 분극적인 민족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인의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에 대한 정통성 인정과 충성이 유지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반체계적 성격을 고수한 정당도 있었다. 독일민족사회주의노동당(NNSSD)은 1919년 창당 당시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반유대주의 철십자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sup>10)</sup> 이 정당은 강령에서 유대인의 상업활동 금지를 주장하고 독일인 거주지역의 독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등 민족주의를 당의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제시했다. 독일 민족당(NSN) 역시 1926년 발표한 강령에서 독일의 자치권 및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고, 유대인들의 경제활동 반대 등 민족주의적 주장을 제시했다. 두 정당은 모두 1933년 불법화되었지만 이들을 주축으로 한 수데텐 독일당(Sudetoněmecká strana)이 결성되어 1935년 선거에 참여했다.

1935년 이전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계 정당의 영향력은 미약했지만, 1935년 선거에서 수데텐 독일당이 승리하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1935년 수데텐 독일당이 독일인 유권자 전체의 63%의 지지로 체코슬로바키아 전국적으로 15.2%를 얻어 44석을 획득한 반면, 친체계 독일계 정당들은 21석만을 획득하게 되어 결국 수데텐 지역의 분리를 요구하는 수데텐 독일당 중심의 분극적이고 원시적인 경향이 팽배해졌다.<sup>11)</sup>

10) Eva Broklová, *Československá Demokracie: Politický Systém ČSR 1918-1938* (Praha: Sociologické nakladatelství, 1992), s. 98.

11) 1925년 선거와 1929년 선거에서는 친체계 독일계 정당들이 반체계 독일계 정당을 압도했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친체계 독일 정당들은 평균 53석을 획득한 반면 반체계 정당들은 평균 16석을 획득

결국 이러한 상황은 히틀러의 등장과 맞물려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가 통합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했고 마침내 1938년 9월 뮌헨협정으로 수데텐 지역이 독일에 할양되었다. 한편 독일은 1939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점령함으로써 체코 지역에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Protektorát Čechy a Morava)'을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반체코 민족주의 경향을 원조해 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유도했다.

체코와 독일인과의 반감은 역사적 볼 때, 이미 15세기 후스주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7세기 빌라호라(Bilá Hora)에서 독일인을 주축으로 한 카톨릭 연합군에 체코 후스주의가 패배한 이후 체코는 독일에 종속되었고 20세기 독립까지 '독일화 정책'에 희생되었다. 체코에서 독일화가 진행되면서 체코인들의 반독일정서는 고조되었지만, 이들의 무력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세기 산업화를 거치면서 독일인 산업지대로의 체코인 이주는 새로이 양민족간 갈등요소가 되었는데, 1880-1900년 사이 약 50만명에 이르는 체코인들이 독일인 거주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독일인은 체코인의 값싼 노동력과 多産性으로 인해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위협을 인지했고 이로써 체코인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sup>12)</sup> 따라서 17세기 이후 보헤미아 지역에서 독일인과 체코인의 동화가 실패하게되었던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두 민족을 구획한 또다른 측면은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의식을 부여하는 또다른 측면인 종교에서의 차이였다. 17세기 체코에서의 강제적인 재카톨릭화(re-Catholicization)가 독일화와 동일시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며,<sup>13)</sup> 이 시기를 체코 민족사의 암흑기로 규정하고 국가독립 이후 후스주의를 장려한 마사리의 종교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up>14)</sup>

했을 뿐 정당체계 및 원내에서 이렇다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Tamtěž*, s. 42.

12) Ronald M. Smelser, "Castles on the Landscape: Czech-German Relations," in H. Gordon Skilling (ed.), *Czechoslovakia 1918-1988: Seventy Years from Independ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 84.

13) 1627년 보헤미아에서 그리고 1628년 모라비아에서 카톨릭만이 합법화된 종교로 선포되었고, 신교도 체코인이 90%이상을 차지하던 두 지역에서 급속한 속도로 종교적 변화가 나타났다. 신교도 귀족은 추방되었고 많은 카톨릭 교도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예수는 신교와 관련된 많은 종교서적을 불태웠다. 이러한 강제적인 개종과 신교도 탄압으로 인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인구는 300만명에서 90만명으로 급감했으며 독일인들이 체코인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독일어가 공식어가 되었다. 임영상 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서울: 한국외대, 1996), p. 227.

14) 마사리는 체코의 전통적인 후스주의에서 체코정신과 민족의식을 발견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체코 민족정신과 민족정체성의 원천을 카톨릭교회에 반대하는 후스주의에서 찾고 있다. Tomas G. Masaryk, *The Meaning of Czech History*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1974), p. 7; Pedro Ramet, *op. cit.*, p. 272에서 인용.

이러한 두 민족의 역사적인 반감은 1918년에 이후 체코인이 새로운 국가의 주도민족이 된 이후에 극단화되었다. 독일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려 했고 자신들에 비해 정치,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여기는 체코인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1918년 이후 한동안 경제적인 이유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1930년대 경제위기와 히틀러를 추종하는 헨라인(K. Henlein)의 수테텐 독일당의 선전, 선동에 의해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정통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체코-독일간 균열구조에서 두 민족을 구분시키는 요소는 민족성과 종교간의 차이로 구체화되었으며, 결국 종교가 민족의식을 형성시키는 요소중 하나라고 할 때 민족성에 따른 두 민족간의 경쟁과 갈등이 뿌리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 2.2 체코-슬로바키아간 민족주의

체코-독일간 민족갈등과 민족의식의 충돌에 비해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주도민족으로서의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의 존재여부 역시 잠재적인 균열요소로 존재했고 1939년 독일의 체코점령과 더불어 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독립하기에 이르렀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간의 갈등구조에서의 근본적 문제점은 과연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9세기 대모라비아제국에서의 同居를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의 기원으로 파악할때는 단일민족이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1025년부터 1918년까지 약 1,000년의 시기동안 각기 상이한 환경속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설령 두 민족이 단일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인과 체코인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상이한 기질,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홀린카(A. Hlinka)의 주장처럼,<sup>15)</sup>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1918년 국가독립을 위해 그리고 독일인 다수가 포함되는 국가에서 민족적 다수를 점하기 위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15) Josef Korbel, *op. cit.*, p. 101.

16) 체코슬로바키아가 단일민족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자책의 주장처럼 지리적 측면과 언어적 유사성만으로 두 민족을 단일민족으로 분류하기란 어려울 듯하다. Joseph F. Zacek, "Nationalism in Czechoslovakia," in Peter F. Sugar and Ivo J. Lederer (eds.),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4), p. 166.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의 주도적 세력들은 대다수가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 사상(Czechoslovakism)의 주창자들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사릭은 슬로바키아인은 방언을 사용하는 보헤미아인이라고 했으며,<sup>17)</sup> 슈로바르(V. Šrobár)와 호자(M. Hodža) 등 슬로바키아 정치인들 역시 슬로바키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슬로바키아의 체코슬로바키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슈테파닉(M. R. Štefánik)은 “체코인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이며, 슬로바키아인은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체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sup>18)</sup> 전체적으로 단일민족 사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sup>19)</sup>

건국초기 이러한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 사상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세한 체코인들의 슬로바키아 원조가 兄弟愛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었다. 1918년 국가독립을 전후해 두 지역간의 상이성은 현격했는데, 체코지역이 합스부르크 제국에서도 가장 발달된 산업의 중심지였고 상업적, 행정적, 사회계층의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수준에 이르렀지만, 마자르화를 거친 슬로바키아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낙후되어 있었고 사회계층에서의 불균형으로 체코의 원조가 시급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상황이 안정되면서 체코인들의 슬로바키아 ‘점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슬로바키아 전체인구의 2.4%에 불과한 체코인들이 슬로바키아의 거의 모든 분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인들의 사회진출에 장애물로 등장했다. 한편 슬로바키아에 이주한 체코인들의 형제애와는 상관없이 슬로바키아인들은 이제 이들을 마치 정복자로 간주했고 더 이상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 사상에 순응하지만은 않았다.<sup>20)</sup>

슬로바키아에서의 민족의식은 특히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제1공화국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중앙정부의 반카톨릭, 친프로테스탄트 경향에 따라 그동안 마자르화를 거치면서 슬로바키아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켜왔던 카톨릭 교회의 역할이 이제 ‘체코의 점

17) Edita Bosák, “Slovaks and Czech: an uneasy coexistence,” in H. Gordon Skilling (ed.), *op. cit.*, p. 74.

18) Thomas D. Marzik, “Milan R. Štefánik and the Creation of Czecho-Slovakia,” in Sharon L. Wolchik and Ivan Dubovický (eds.), *The Birth of Czechoslovakia - Seminar on the Founding of the Independent Czechoslovak State* (Praha: Set-Out, 1999), pp. 32-33.

19) Otto Ulč, “Czechoslovakia’s Velvet Divorce,” *East European Quarterly*, Vol. 30, No. 3 (Sep. 1996), p. 333.

20) Edita Bosák, *op. cit.*, p. 73.

령'에 대항해 슬로바키아의 민족정체성을 지키는 역할로 변모되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홀린까의 슬로바키아 인민당(Hlinkova slovenská ľudová strana)과 슬로바키아 민족당(Slovenská národní strana)이 있었다.

슬로바키아 인민당은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 선거에 참여했고, 1925년부터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1935년에는 슬로바키아 민족당과 자치주의 블록(Autonomistický blok)을 구성해 선거에 참여했다. 당 강령에서 슬로바키아의 권리증진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대를 당의 주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자치와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슬로바키아어의 배타적 사용권을 요구했다. 슬로바키아 민족당은 카톨릭 유권자에 기초하는 인민당과는 달리 체코와 슬로바키아 단일민족 사상에 반대하는 슬로바키아 프로테스탄트에 기반을 두고 1920년 선거와 1925년 선거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1929년과 1935년 선거에는 각각 민족민주당, 슬로바키아 인민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했다.

두 정당의 민족주의 성향은 슬로바키아의 자치 및 반체코 중심주의, 반프로테스탄트, 반무신론을 결집시켰으며 이것은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개별 정체성을 지닌 상이한 민족임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슬로바키아 인민당이 한동안 농민당 주축의 연립내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체코 중심주의를 인정한다거나 혹은 체코슬로바키아 단일민족 사상을 수용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결국 슬로바키아 인민당은 투카(B. Tuka) 사건으로 내각에서 탈퇴했으며,<sup>21)</sup> 이를 계기로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지지기반을 넓히고 슬로바키아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요컨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단일민족인지를 둘러싼 대립은 결국 1939년 '두개의 상이한 민족'으로 결과되었고 그것은 민족의 공동의식이 결합되고 조직화된 최고의 형태, 즉 주권국가의 건설로<sup>22)</sup> 이어졌다.

## 2.3 기타 민족주의

체코와 독일, 체코와 슬로바키아간의 민족문제뿐만 아니라 제1공화국 시기에는 슬로

21) 1928년 인민당 소속 투카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결의한 '마르틴 선언'에 따라 이제 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특히 프라하 정부는 투카가 헝가리로부터 재정원조를 받아 국가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처벌했다. Carol S. Leff, *National Conflict in Czechoslovakia: the making and remaking of a state 1918-1987*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8), pp. 82-83.

22) Hans Kohn, *op. cit.*, p. 39.

바키아와 헝가리간의 민족주의도 존재했다. 슬로바키아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는 헝가리인들 역시 체코내의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1918년 이전의 주도적 민족의 위치에서 이제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으며, 이에 저항하여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헝가리인들은 1920년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언어법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헝가리로의 귀속을 요구하여 정치조직화했다.

이외에도 루테니아인, 폴란드인, 유대인, 집시 등이 각각 정치조직을 구성해 자신들의 민족적 이해를 표출했다. 그러나 제1공화국 당시 독일인과 헝가리인을 제외한다면 기타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은 이렇다할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이들이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한데다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 산재해 있어 하나의 결집된 세력으로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제1공화국 시기 민족을 둘러싼 균열구조는 개별민족을 기반한 정당들로 표출되었다. 이런 민족정체성과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적 이해가 정당으로 조직되고 이들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반체제적 성격이 감소되었고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그리고 친체제적 성격으로 의회민주주의에 적응해 갔다. 따라서 제1공화국 시기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가 심각할 만한 수준이었음은 분명했지만, 이런 상황이 민족간 유혈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개별민족의 민족의식이 약했다거나 그들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개별민족을 체계내로 포용하고자 했던 여러 시도에 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제도적 요인은 첫째, 민주적, 진보적 헌법을 통해 소수민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했다. 특히 개별 구성민족을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의 분리주의적 충동을 사전에 방지했고, 언어법 등을 통해 개별민족의 이해를 최대한 제도로 반영하려 함으로써 갈등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둘째, 민주적 정치제도를 통해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의회로 통합시키려 했다. 정당법이나 선거체제에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개별 민족의 이해를 수용하려 했다.

셋째, 체코와 슬로바키아간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각각 독일과 헝가리라는 개별적인 민족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둘사이의 갈등이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고 여러 분야에서 두 민족의 연합을 통해 대독일, 대헝가리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곧 외부의 영향에 의해 파괴되었고, 결국 체코-독일, 체코-슬

로바키아, 슬로바키아-헝가리, 슬로바키아-루테니아 등 모든 민족문제가 동시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 3. 공산정권 시기의 민족주의(1948-1989)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무혈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상황은 제1공화국 시기와는 완전히 상이해졌다. 무엇보다도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이 인정되는 가운데 다른 모든 정치세력의 독립성이 사라졌고 엄격한 국가통제와 사적 소유권 폐지를 기초로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기타 사회전영역에 파급되는 전체주의적 획일성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sup>23)</sup>

민족 구성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졌다. 1차대전에 이은 '민족의 모자이크' 현상은 사라졌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하에서는 국가와 민족이 완전히 동질적으로 변모되었다. 전후 250만명 이상의 독일인이 추방되면서<sup>24)</sup> 독일인은 이제 체코에서 1.6%에 불과한 소수로 전락했고 남아있던 독일인 대부분도 이미 체코에 동화되었다. 동시에 체코슬로바키아내 유대인들이 2차대전 당시 대부분 사라졌고, 1944년 루테니아는 우크라이나에 합병되었다. 다만 슬로바키아내의 헝가리인들만이 여전히 슬로바키아 전체인구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sup>25)</sup>

이로써 제1공화국 시기 국가 통합성 유지에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독일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헝가리 민족의 저항도 공산체제의 강압적인 방식,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반한 방식

23) 전체주의는 ① 발전된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단일 지도자가 통제하는 단일한 대중정당의 존재, ③ 테러의 편제, ④ 매스컴의 지배적 독점, ⑤ 군통제권의 독점, ⑥ 중앙통제경제 등의 6가지 속성을 지니는 체제로 규정된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p. 27.

24) 대통령 베네쉬(E. Beneš)는 전후 망명지에서 돌아온 직후의 연설에서 "독일인들은 사람이기를 거부했으며, 우리들에게는 괴물이나 다름없다"라는 독일인 추방 이유를 밝혔다. Benjamin Kuras, *Czechs and Balances* (Praha: Baronet, 1998), p. 174.

25) Milan J. Reban, "The Catholic Church in Czechoslovakia," in Pedro Ramet (ed.), *Catholicism and Politics in Communist Societies* (Durham: Duke Univ. Press, 1990), pp. 143-144.

에 의해 '쉽게' 해결되었다.

문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있었다. 비록 1968년 헌법으로 연방국가가 되었고 개별 공화국에 대한 자치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프라하 중심주의가 유지되었고 체코 중심의 중앙집중체제가 확고해졌다. 체코슬로바키아 중앙정부에서는 슬로바키아인들의 잠재된 민족의식의 표출을 막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그중 하나가 슬로바키아 출신을 공산당 제1서기로 임명하는 방안이었다. 1968년 슬로바키아 출신 두브체크(A. Dubček) 그리고 '정상화' 이후 후삭(G. Husák)이 모두 슬로바키아 출신이며 이외에도 고위층에 슬로바키아인들을 배치시킴으로써 슬로바키아인들의 소외감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반면 이들이 모두 공산당 제1서기 혹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중앙집중적인 프라하 중심주의를 유지하며 슬로바키아의 자치를 축소했다는 점에서는 슬로바키아의 반프라하 중심주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sup>26)</sup>

한편 슬로바키아의 민족의식이나 민족정체성의 등장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경제영역에 있었다. 공산화 이후 일단 종교를 둘러싼 양민족의 균열이 사라지고<sup>27)</sup> 공산주의식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영역에 기초한 민족주의보다는 경제분야에서의 민족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표1: 슬로바키아 경제발전 수준〉 (체코=100)

영역 \ 연도	1948	1960	1970	1980	1989
일인당 총소득수준	61.2	74.4	78.8	85.2	85.7
노동자당 총소득수준	58.9	87.2	91.2	92.1	95.1
생산영역에서 고정자산	57.9	80.2	85.8	95.1	98.3
비생산영역에서 고정자산	53.3	64.3	70.8	80.8	82.6
일인당 산업생산	48.4	64.5	76.6	89.0	89.0
일인당 농업생산	98.7	109.4	100.3	99.3	94.6
평균임금	91.6	96.7	98.2	98.3	98.5

〈출처: *Historická Statistická Ročenka ČSSR* (Praha 1992), s. 91.)

26) Edita Bosák, *op. cit.*, p. 79.

27) 종교를 둘러싼 양 민족간 이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공산정권의 반종교정책과 전 세계적인 종교 세속화에 따른 종교의 영향력 하락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나타났다. 예를들어 1945년 체코인중 80%가 종교가 있었으나 이 비율은 1960년대에는 55%로 그리고 1980년에는 30%대로 하락했으며, 슬로바키아에서도 2차대전 직후 신도의 비율이 95%에 이르렀으나 1950년대 76%로 그리고 1980년에는 51%로 하락했다. Milan Navrat, *Religion in Czechoslovakia* (Praha: Orbis, 1984), pp. 60-61.

스탈린식 산업화 정책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전후 10년동안 중공업분야에서의 생산성이 128% 증가했다. 낙후된 산업지역으로 농업에 기반하던 슬로바키아는 산업화된 체코에 비해 보다 더 집중적인 발전전략의 대상이 되었다. 戰前의 농업과 소비재 산업중심에서 탈피해 중공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화 정책이 실시되었다.<sup>28)</sup> 그러나 여전히 슬로바키아인들은 이런 정책 역시 프라하 중심주의의 소산으로 여겼으며, 동시에 체코인들은 이런 정책을 자신들의 富를 슬로바키아로 넘겨주는 것이라 생각했다.<sup>29)</sup> 어쨌든 공산정권시기 슬로바키아에 집중되었던 투자와 발전전략은 양 지역의 평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적어도 경제분야에서의 갈등의 소지는 사라졌다.

이와 같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 시기에 두 민족간의 갈등이나 민족주의를 기반한 장기적이며 조직적인 균열구조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 시기 슬로바키아의 민족의식이 고양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고 해도 민족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균열구조가 표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공산당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기타 소수정당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다만 공산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들 각자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균열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도 못했다.<sup>30)</sup> 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슬로바키아 지역조직에 불과했으며, 슬로바키아 자유당과 재생당 역시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정당에 불과했다.

#### 4. 민주화 이후의 민족주의

1989년 11월 벨벳혁명(Sametová Revoluce)을 기점으로 공산정권이 퇴장하고 민

28) Todoritchta Gotovska-Popova, "Nationalism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East European Quarterly*, Vol. 27, No. 2 (June 1993), p. 176.

29) 정중재, "분리독립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문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보고서, 1996), p. 52.

30) 위성정당은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위장술, 선전적 가치만을 지니는 정당에서부터 사회계층을 마찰없이 정치체계에 포용하기 위한 정당 등으로 평가되는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 이외의 4개의 위성정당의 역할은 전자에 가깝다. 반면 슬로바키아에 슬로바키아 공산당이외에 다른 2개의 정당을 남겨두었던 것은 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 역사적 상황, 이데올로기, 체제변동』(서울: 한길사, 1982), p. 222; Jerzy J. Wiatr, "The Hegemonic Party System in Poland," in E. Allart and S. Rokkan (eds.), *Mass Politics* (New York: Free, 1970), pp. 312-321 참조.

주이행이 시작되었다. 민주이행의 기본적 목표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용과 시장경제로의 이행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전체주의적 사회를 다원주의화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산정권 시기에 억눌려 있었던 각종 이슈영역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68년 이래 연방화된 국가 체제를 유지해오기는 했지만 두 지역간의 상이성은 민주이행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민주이행의 초기단계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간 갈등이 나타나게된 결정적 요인은 경제영역에 있었다. 1990년 선거에서 체코의 시민포럼(Občanské Fórum)과 슬로바키아의 반폭력대중(Verejnost Protí Nasíli)이 반공산당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지만, 이 두 포럼정당이 해체된 이후에는 두 지역을 이어주는 공통적인 관심도 공통적인 조직도 사라졌다.

1992년 체코의 시민민주당(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해 시장경제의 도입, 전면적 사유화, 국가의 경제개입 배제, 각종 보조금 폐지 등을 제시하며 체코내 제1당이 되었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취약한 슬로바키아 경제보호를 위해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 사회보장제의 확대 등을 제시한 민주슬로바키아운동(Hnutie za Demokratické Slovensko)이 최대정당이 되었다. 두 정당간의 견해차는 경제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전환을 둘러싼 異見이 가장 두드러졌다.

결국 두 지역에서의 여론의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급진적인 경제개혁의 속도와 그 범위에 따라 분리되었는데, 실제로 민주화 이후 공산정권 시기에 과도한 중공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혜택을 받았던 슬로바키아 지역의 경제위기는 체코보다 더 심각했고 지속적인 투자와 보조없이 결국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행이 진행되면서 더욱 취약해진 슬로바키아의 경제상황은 결국 슬로바키아인들로 하여 반체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매개역할을 한 것은 이러한 여론분리를 이용하려 했던 민족주의 정당들이었다. 체코내 민족주의 정당들이 대부분 국가의 유지를 기본적 목표로 견지했던 반면, 슬로바키아 민족당을 중심으로한 슬로바키아 민족주의 정당들은 반체코를 당의 목표로 정해 국가의 분리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표2: 198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거시경제지표〉

	1989		1990		1991		1992		1993	
	CR	SR	CR	SR	CR	SR	CR	SR	CR	SR
실업률변동*			0.8	1.5	4.1	11.8	2.6	10.4	3.5	14.4
물가상승률**	1.4	1.3	9.7	10.4	56.6	62.6	11.1	10.0	20.8	23.2
실질 GDP 성장률***	4.5	1.1	-1.2	-2.5	-11.5	-14.5	-3.2	-6.5	0.6	-3.8

(CR: 체코, SR: 슬로바키아)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No. 62 (1997)에서 재구성), \*\*\*: OECD Economic Outlook, No. 2 (1997)에서 재구성)

이런 사실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간 민족갈등은 제1공화국 시기에는 문화적 요소, 즉 종교, 언어, 역사 등을 기반해 있었던 반면 근대화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문제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측면은 이런 경제문제를 둘러싼 두 지역간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 대다수가 여전히 국가의 유지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인데, 1992년 국가분리가 거의 확정된 순간까지도 양 지역에서 분리안을 찬성하는 수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국가분리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여기에 200만명이 서명을 하는 등 국가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서는 국민투표 실시를 거부했고 결국 1992년 11월 25일 연방의회 300석중 개헌의석인 3/5에 불과 3석이 많은 183명의 찬성으로 국가분리를 결정했다. 이로써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공식분리되었다.

이렇게 국가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무시된채 두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들간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간의 민족갈등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만일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는 비율이 상당수준에 이르렀다면 문제는 보다 단순해질 수 있다. 즉, 민주이행에서의 경제전환에 대한 이견, 지역간 경제적 격차 심화, 민족간 위기 고조, 국가분리라는 순서대로 자연스런 인과관계가 가능하지만,<sup>31)</sup> 실제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에서는 이러한 단순화된 도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두 지역간의 경제전환에 대한 이견과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따라서 이전시기보다 격화된 대립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런 대립이

31) 이러한 도식은 Jan Adam, *Planning and Market in Soviet and East European Thoughts 1960s-1992*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pp. 259-261을 비롯한 많은 체코 지역전문가들의 일치된 관점이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분리를 결정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92년에 와서 두 지역간의 이견이 심화된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견해차가 실질적인 국가분리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 공화국 최대 정당인 시민민주당과 민주슬로바키아운동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국가분리를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상이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국가분리가 중요한 이슈도, 고려할 만한 사실도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분리가 두 공화국 개별민족에게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슬로바키아에서는 국가분리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슬로바키아 민족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불과 7.9%의 지지를 받아 슬로바키아내 제4당에 머물렀다.

〈표3: 국가형태에 대한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태도〉

	1991. 11		1991.12		1992.1		1992.3		1992.5		1992.6		1992.7	
	ČR	SR	ČR	SR	ČR	SR	ČR	SR	ČR	SR	ČR	SR	ČR	SR
단일국가	39	20	36	17	38	17	34	13	34	12	29	11	38	14
연방국가	30	26	27	31	32	33	27	24	28	33	28	26	19	27
영토에 기반한 두개의 공화국	20	6	24	4	15	5	18	9	22	6	21	6	18	8
국가연합	4	27	4	30	4	30	6	32	6	31	5	31	3	30
독립국가	5	14	6	11	5	12	11	17	6	11	13	18	16	16
기타	2	7	3	7	6	3	4	5	4	7	4	8	6	5

(ČR- 체코 공화국; SR-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처: Sharon L. Wolchik, "The Politics of Transition and Break-Up of Czechoslovakia," in Jiří Musil (ed.), *The End of Czechoslovakia*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 Press, 1995), p. 235.〉

따라서 국가분리를 민족주의의 최대목표 달성<sup>32)</sup>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다만 두 지역 최대정당간 그리고 그 최고지도자간 협상과 합의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두 공화국의 국가형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슬로바키아의 메치아르(V. Mečiar) 총리는 연방제와 국가연합안을 번갈아 제시하며 보조금 지불과 경제정책 수정의 경우에는 연방제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합안이나 국가분리를 주장함으로써, 국가분리 자체보다는 슬로바키아의 단기적 이익을 중요시했고, 체코의 클라우스(V. Klaus) 총리 역시 메치아르를 비롯한 슬로바키아 협상 대표단의 예절이나 행동양

32) Hans Kohn, *op. cit.*, pp. 36-37.

식을 문제삼아 슬로바키아와의 감정대립에 빠지는 등 실질적인 협상이나 타협을 위한 노력보다는 그 이외의 사안에 더 집착했다.<sup>33)</sup> 이런 사실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가분리를 너무 쉽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분리의 당위성으로 제시되었던 개별 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이 양민족간의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 론

전세계적인 지구화 현상과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의 상이한 추세는 통합과 분화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요약된다. 서유럽에서의 통합현상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중·동유럽에서의 분화현상은 민족이라는 추상적, 문화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지역간의 상이한 경향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에서는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두 공화국 모두 서유럽으로의 편입을 목표로, 특히 경제적 발전을 위해 EU가입 등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분화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견 모순적이다.

국가분리 이후 체코의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만은 분명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분리를 단행했다는 것은 분명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보이며, 슬로바키아에서의 결정은 경제악화 및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 등 체코의 상황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슬로바키아가 단일국가내에서 슬로바키아인의 이등 시민 취급의 이유를 들어 분리를 단행했다면, 슬로바키아내 헝가리인들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태도는 분명 모순적이지 아닐 수 없다.

민족주의를 우리와 그들간의 구별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때, 이러한 민족의식과 민족 정체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식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두드러졌었다. 특히 1989년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 민족의 참여한 피-아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참여한 대립양상을 유도하려 했던 매개체였다.

따라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가분리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민족의식의 구체

33) Otto Ulč, *op. cit.*, p. 338.

화라기 보다는 국가분리를 통해 나타나게될 단기적인 이득과 그러한 이득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민족의식을 동원하려 했던 매개체의 의지가 구체화된 결과로 파악된다.<sup>34)</sup>

---

34) 이것은 국가분리 이후에도 두 지역의 여론이 여전히 단일국가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해진다. 1993년 3월 국가분리 이후 슬로바키아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인의 50%가 국가분리를 잘못된 결정이라 여겼으며, 29%만이 국가분리를 지지했다. 또한 분리 이후의 상황보다는 분리 이전의 단일국가에서의 상황이 더 긍정적이었다는 응답비율은 63%에 이르렀다. Ivan Gabal, "Czechoslovakia: The Two Successors," in Bogdan Goralczyk, (ed.), *In Pursuit of Europe: Transformation of Post-Communist State 1989-1994* (Warsaw: Instytut Studiów Politycznych, 1995), p. 46.

## 참고문헌

- 김용직. "민족주의, 국제관계, 근대성."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나남, 1995.
-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비평, 1981.
- 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 역사적 상황, 이데올로기, 체제변동』. 서울: 한길사, 1982.
- 임영상 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한국외대, 1996.
- 정중재. "분리독립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문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 연구 보고서, 1996.
- Adam, Jan. *Planning and Market in Soviet and East European Thoughts 1960s-1992*.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Alter, Peter. *Nationalism*. London: Edward Arnold, 1994.
- Anderson, Benedict.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형숙 역. 서울: 나남, 1991.
- Bartolini, Stefano and Mair, Peter.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 Broklová, Eva. *Československá Demokracie: Politický Systém ČSR 1918-1938*. Praha: Sociologické nakladatelství, 1992.
- Bosák, Edita. "Slovaks and Czech: an uneasy coexistence." in Skilling, H. Gordon. ed. *Czechoslovakia 1918-1988: Seventy Years from Independ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Bugajski, Janusz. *Ethnic Politics in Eastern Europe*. New York: M.E. Sharpe, 1995.
-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iew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 Gabal, Ivan. "Czechoslovakia: The Two Successors." in Goralczyk, Bogdan. ed. *In Pursuit of Europe: Transformation of Post-Communist State 1989-1994*. Warsaw: Instytut Studiów Politycznych, 1995.
- Gotovska-Popova, Todoritchta. "Nationalism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East European Quarterly*. Vol. 27, No. 2. June 1993.

- Gronský, Ján a Hřebejk, Jiří. *Dokumenty k Ústavnímu Vývoji Českoslovenaka I : 1918-1945*. Praha: Nakladatelství Karolinum, 1999.
- Honajzer, Jiří. *Vznik a Rozpad Vladních Koalic v Československu v letech 1918-1938*. Praha: Orbis, 1995.
- Korbel, Josef. *Twentieth-Century Czechoslovakia*.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7.
- Kuras, Benjamin. *Czechs and Balances*. Praha: Baronet, 1998.
- Lane, Jan-Eric and Ersson, Svante O.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London: Sage, 1994.
- Leff, Carol S. *National Conflict in Czechoslovakia: the making and remaking of a state 1918-1987*.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8.
- Marzik, Thomas D. "Milan R. Štefánik and the Creation of Czecho-Slovakia." in Wolchik, S. L. and Dubovický, I. eds. *The Birth of Czechoslovakia - Seminar on the Founding of the Independent Czechoslovak State*. Praha: Set-Out, 1999.
- Navrat, Milan. *Religion in Czechoslovakia*. Praha: Orbis, 1984.
- Pospielski, D. "Some Remarks on the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and Religions Revival."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Vol. 2, No. 1. Spring 1984.
- Rae, Douglas W. and Taylor, Michael. *The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0.
- Ramet, Pedro. "Christianity and national heritage among the Czechs and Slovaks." in Ramet, P. ed.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Durham and London: Duke Univ. Press, 1989.
- Reban, Milan J. "The Catholic Church in Czechoslovakia." in Ramet, P. ed. *Catholicism and Politics in Communist Societies*. Durham: Duke Univ. Press, 1990.
- Smelser, Ronald M. "Castles on the Landscape: Czech-German Relations."

- in Skilling, H. G. ed. *Czechoslovakia 1918-1988: Seventy Years from Independ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Smith, Anthony D. "Culture, Community and Territory: the Politics of Ethnicity and Nationalism." *International Affairs*. Vol. 72, No. 3. July 1996.
- Ulč, Otto. "Czechoslovakia's Velvet Divorce." *East European Quarterly*. Vol. 30, No. 3. Sep. 1996.
- Wiatr, Jerzy J. "The Hegemonic Party System in Poland." in Allart, E and Rokkan, S. eds. *Mass Politics*. New York: Free, 1970.
- Wolchik, Sharon L. "The Politics of Transition and Break-Up of Czechoslovakia." in Musil, Jiř. ed. *The End of Czechoslovakia*.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 Press, 1995.
- Zacek, Joseph F. "Nationalism in Czechoslovakia." in Sugar, P. F. and Lederer, I. J. eds.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4.
- Historická Statistická Ročenka ČSSR*. Praha 1992.
- OECD Economic Outlook*. No. 2. 1997.
- OECD Economic Outlook*. No. 62. 1997.

## Abstract

# Nationalism in Czech and Slovakia

Kim, Sin-Kyu

After communist regimes were collapsed, national conflicts have been arising in East and Central Europe.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s which were restrained under communist regimes for 40 years are coming out as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is area. In this development Czech and Slovakia was separated into two independent states in 1993. Two states have experienced separations and unifications several times since 1918. But 'Velvet divorce' in 1993 has several complicated national backgrounds.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notion 'nation' and 'nationalism' to find the causes of national conflicts in Czech and Slovakia. Most of all, I try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nationalism with the passage of times, since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have so many different forms and variations in space and time. For this reason, only with reference to a concrete historical context can we say what the term actually does or should signify. After all, nationalism does not exist as such, but a multitude of manifestations of nationalism do.

The first part of article, I classified nationalism or national conflicts in the First Republic of Czechoslovakia (1918-1938) into three parts including between Czechs and Germans, between Czechs and Slovaks, and others. Though the most dangerous part of nationalism was the conflict between Czechs and Germans, Slovak's nationalism was the latent one which has continued until 1993.

The second part of article is about the nationalism under communist regime. In this period, all forms of nationalism and national interests were restrained by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Despite of this fact, Czechs-Slovaks national interests were somewhat differences and were laid under the surface.

In the third part of article, I try to analyze the reason of break-up of Czechoslovakia through the differences of national interest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tization, the distance of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identities between two nations had deepened. For this reason, it has been said that the conflicts of nationalism between Czechs and Slovaks lead to the separation of Czechoslovakia. But I cannot find the concrete causal relation between nationalism and separation into two independents states, since the result of consensus on the forms of state shows that majority of two nations do not want to live in separated state. For this reason, I conclude that the break-up of Czechoslovakia do not imply the culmination of nationalism, but is the result of nationalist and populist politicians who were interested just short-term interests.